

광주 지난해 외국인 환자 증가율 전국 최고

4739명...전년비 125% 늘어 의료관광 육성 효과 가시화 전국 환자수 비중은 1%대 그쳐

광주시가 의료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외국인 환자 방문 비중이 여전히 1%대 밖에 되지 않아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 집계 결과 37만 89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2만1574명에 비해 17.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4739명이었다.

전년인 2017년 2015명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7.8%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광주 의료관광 지원센터, 해외홍보사무소 설치·운영과 함께 의료기관 통·번역 편의서비스 지원,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윈스톱 의료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4회, 국내 팸투어 9회, 전시컨벤션(MICE)산업 연

계 홍보 전시 8회, 현지 에이전시 등과 업무협약 17건을 체결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메디컬광주 브랜드를 제고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숫자가 전년에 비해 급증하기는 했지만, 전체 외국인 환자 인원 중 1.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4.8%인 약 24만 5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2%), 인천·대구(각 4.7%), 부산(4.0%), 대전(2.1%), 제주특별자치도(2.0%) 순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좀 더 공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펼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의료·웰

니스 관광상품 개발, 선도 의료기관 지정 무협약 17건을 체결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메디컬광주 브랜드를 제고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숫자가 전년에 비해 급증하기는 했지만, 전체 외국인 환자 인원 중 1.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4.8%인 약 24만 5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2%), 인천·대구(각 4.7%), 부산(4.0%), 대전(2.1%), 제주특별자치도(2.0%) 순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좀 더 공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펼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의료·웰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전국 우수사례

도시재생 박람회 장관상

광주시 북구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최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북구는 2023년까지 전남대와 광주역 주변에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2019 북구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의는 6월 4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각각의 내용에 맞춘 분야별 도시재생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강의의 질을 높인다.

올해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이해 ▲도시의 역사 ▲빈집활용 사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등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이론 중심 강의와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병행한다.

또한, 기본과정 수료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중심의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시재생 활동가 및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의는 북구 도시재생추진단 도심활성화팀(062-410-6803)으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20명 모집...23~25일 접수

광주시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양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광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역사·관광자원 등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 자원봉사자다.

이번에 신규 양성하는 해설사는 영어 5명, 중국어 5명, 일본어 4명, 한국어 6명 등 20명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면 된다. 특히 외국어 가능자 및 역사·관광학 분야 전공이나 경력 보유자, 취약계층, 수화 가능자는 우대한다.

접수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광주관광개발연구원 방문 또는 우편(광주시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30 5층, 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 이메일(2019tourstart@naver.com) 등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 대상자 20명을 선발하고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00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3개월 간 현장수습 과정을 거친 후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하루 7시간, 월 5회 이상 해설을 맡게 되며, 자원봉사자기본법에 따라 활동실비를 지급받는다.

현재 광주에서는 관광지 17곳에서 82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문화관광해설사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사)광주관광개발연구원(062-954-3113)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구민상' 영광의 얼굴들 광주시 남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9일 제24회 남구민의 날을 개최해 남구민상 수상자 5명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자치구·환경청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방지시설·측정 횡수 단속 노후시설 교체 비용 지원도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 인근의 도장업 등 소규모 배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특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또 최근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조치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횡수, 측정항목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여 개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에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점검과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산구의회 5분 발언 통해 지역현안 개선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19일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윤혜영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공영역인 만큼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하여 영세 입주민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터 인건비 인상안 제출을 놓고 "기업주치의센터 출범 4개월만에 센터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은 시기상조이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꼬집었다.

김영관 의원은 "하남3지구를 교통과 보행 등 장애인들의 이동장벽이 없는 무장애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광산의 대표적인 무장애 사업모델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10월 26일까지 '공동 예술의 거리 축제'

'공동 예술의 거리 축제'가 올해는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 펼쳐진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예술의 거리 축제를 낮 시간대에만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낮과 밤, 각각 10회씩 총 20회에 걸쳐 운영한다.

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7~8월에는 참가 선수와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프로그램은 시민 문화예술체험, 예술가 참여, 참가 참여, 공동체형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온갖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걱정 말아요, 그대!(예술심리치료)', QR코드로 공동 구성구석을 알아보는 '디지털 공동유람', 소원등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보는 '소원을 말해봐!', 중앙무대에 설치된 '트릭아트 포토존', '아시아 명화극장' 등을 선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